

“군산조선소 존치 공약, 空約 안돼”

도·군산시, 대통령 약속 지켜줄 것 당부 입장 표명... 현대중공업, '7월부터 일시 가동 중단' 공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존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에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존치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도와 군산시도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북경제회복과 영호남 화합을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에 대한 대통령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전북기자협회 초청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조선산업

경기 회복시까지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배정받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지하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3월 3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도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선박관련 지원을 통해 일감을 마련할 것”을 공약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전북과 군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내건 문 대통령의 약속이다.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은 문 대통령

자신이 약속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관련 공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은 군산조선소의 존치를 위해 1인 릴레이 시위, 울산현대중공업 본사 방문, 도민 릴레이대회, 그리고 존치촉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4일 현대중공업은 대선 5일전 7월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일시가동 중단한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이에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은 현대중공업의 영업중단 공시는 대선 후보들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공

약을 무시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저버린 무책임한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와 문동신 시장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로 군산과 전북경제가 10년전으로 되돌아 갔다”며 “이제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정부가 나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지역 상공업체와 함께 5,000여명이 참가하는 ‘군산조선소를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방과 후 아동들의 행복잔치 열린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한마음축제’ 13일 개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축제의 계절인 2017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한마음축제가 오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군산시 대야면 소재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군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이연화)가 주최하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영국)의 주관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학부모,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약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한마음 축제는 군산시 전체 5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한 마을 한뜻으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로 행복한 잔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놀이체험 부스에는 날아라 고무신, 물총쏘기, 소원나무에 소원을 말해봐, 바람개비 만들기 등 13종

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전파로 건강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먹거리 부스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치킨강정, 핫바, 과일칩 등 10종의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여 이날은 맘껏 뛰어놀고 맘껏 먹을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아동복지시설로 아이들이 가정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원터”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과 후 아동들이 바르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권 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 맞춤형 치료지원 서비스 운영

군산시드림스타트는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치료지원’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정서불안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 원예 치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10개 지역아동센터 50명의 아동에게 전문치료장사를 파견하여 미술과 원예치료 등 맞춤형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군산=김판권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왕궁터 정비공사 현장점검

공궐담당·후원영역 정비 본격 가동 따라... 사명감 갖고 사업 추진 당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의 공궐담당 정비와 더불어 추진 중인 후원영역 공사가 본격 가동에 따라 정현을 익산 시장이 직접 중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정현을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 왕궁성에 대한 정비 사업임을 명심하고, 고대 원형을 되살리는 중요한 책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백제시대 왕궁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유적의 곳곳을 탐방할 수 있도록 관람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익산 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대 공궐터로서 동아시아 왕궁 건설의 원리와 기술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공유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왕궁리유적에 대한 정비사업은 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정비를 진행했다. 2012년부터는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유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백제시대 유일하게 왕궁의 규모가 확인된 왕궁리유적에 대한 보존관리 차원의 유적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도 일부 유적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후원영역은 왕궁리유적 북동편 구릉쪽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대 궁성 내 후원은 왕궁리유적이 유일인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유적 북동편 구릉을 차지하고 있는 후원에는 구릉의 사면을 끼고 역“U”자 형태의 환수구(環水口)가 넓게 돌아가고, 후원의 남쪽과 서쪽에는 길고 짧은 6개의 곡수로(曲水路)와 4개의 집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후원영역에서는 다양한 도수시설이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궐의 서북편에 위치한 동서석축 배수로로 출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정비사업은 2016년도부터 후원 정비사업에 10억원, 서북편·북편·동북편 공궐담당 정비에는 3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총38억원을 투입해 후원 조정과 정원 유적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환수구는 복토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한 잔디와 락포를 식재 중이며, 환수구 서남편에 위치하는 곡수로의 경우 유구 보호 차원의 복토와 곡수로 내부 표면 경화처리가 진행 중이다.

오는 7월이면 정비 완료된 공궐담당 전구간(약1.5km)과 곡수로와 환수구가 어울어진 독특한 백제 후원영역에 대한 일반인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시민서포터즈 간담회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익산시체육회와 함께 10일 통합전수관 실내공명장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시민서포터즈 참여 단체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 전국체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서포터즈의 역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해 전국체전 개최지 충남 아산시 시민서포터즈에서 활동을 했던 시민을 초청해 시민서포터즈의 역할과 책임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서포터즈는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나 된 마음으로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재정자립도, 국가예산 확보로 낮아져

익산시는 올해 재정자립도 순위가 낮게 나온 것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익산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는 20.89%로 유사 지자체 그룹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익산시가 3,837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재정 여건이 유사한 21개시와 비교하여 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고

많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예산규모가 확대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대략 8:2로 국세의 비중이 높은 세입구조상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확보할수록 예산규모

가 커져 재정자립도가 더욱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등 정확한 재정자립 수준 파악에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열악한 세입기반을 보완하고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지방교부세는 총 3,216억원으로 2016년 당초 대비 35.2% (전국 시 평균 17%) 증가된 837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하림 자연실록 ‘더 매콤한 카레맛 순살찜닭’ 출시

‘(주)하림은 “안동식 찜닭에 매콤한 맛의 빨간 카레를 더한 자연실록 ‘더 매콤한 카레맛 순살찜닭’ 제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림 자연실록 ‘더 매콤한 카레맛 순살찜닭’은 지난 해 7월 출시한 자연실록 ‘더 건강한 순살찜닭’의 인기로 힘입어 마련한 후속 제품이다. 매콤한 카레 맛을 더해 차별화를 꾀했다. 카레 찜닭 소스로 안동식 찜닭 양념에 카레 소스를 더해 이국적인 향과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노란색을 띄는 시중 카레 제품들과 달리 붉은 색의 매콤한 소스로 소비자들의 식욕을 자극한다.

또한 100% 국내산 친환경 닭고기만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순살 닭고기만을 사용했고, 양념이 잘 배어

있어 별다른 손질과정 없이 팬에 넣어 익히면 된다. 조리 시, 취향에 따라 각종 채소나 당면을 추가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가정 간편식이 아닌 건강한 식재료로 맛의 수준을 높인 제품을 선보이고자 이번 ‘더 매콤한 카레맛 순살찜닭’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아외활동이 부쩍 늘어나는 요즘 가정에서 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일품요리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딱 맞는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림 자연실록 ‘더 매콤한 카레맛 순살 찜닭’은 GS수퍼마켓 전 지점에서 단독 판매된다. 가격은 7,000원 대.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